

## ‘제자훈련’과 ‘전도’를 통해 부흥의 축제를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이란 나 스스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역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경산중앙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 전 교인이 전과 다른 행복한 삶을 맛보고 있으며,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기쁜 소식을 전하며 행복해하고 있다. 경산중앙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1년에 두 번 연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새생명축제의 다른 말로, 이 교회에서는 줄여서 ‘행축’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그 어렵고 부담스러운 전도행사를 경산중앙교회에서는 한 해에 두 번이나 하는 것이다. 말이 두 번이지,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태신자를 품고, 1년 내내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미 전도가 체질화된 것도 있지만,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로 인해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된 것이 그 이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김종원 목사를 통해 계속 도전받고 있다.

사실 대구·경북 지역은 아버지가 한번 다닌 교회를 그 자녀세대까지 계속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교회가 건강하든, 분쟁이 있든 한번 다닌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수평 이동도 거의 없고, 움직임 또한 거의 없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경산중앙교회는 예외에 가깝다. 전도의 바람이 불어 기존 신자보다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신선한 매력을 느끼며 경산중앙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대구·경북 지역의 복음화율이 5~7%대라고 한다. 이는 몽골의 복음화율 5%대와 비슷한 수치다. 현재 경산중앙교회 주일 출석 성도는 장년 4,800명, 주일학교 1,800명으로 총 6,600명에 달한다. 창립 55주년 된 전통 교회치고는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자긍심과 행복감도 월등히 높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과는 다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생겼다고 흥분한다.

2009년 김종원 목사가 100억 원의 교회 건축 빚이 있는 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3,200명이 모였었다. 그때도 전도에 대한 잠재된 열정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려 거세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경산중앙교회 교인들의 잠재적 구령의 열정에 불을 지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김종원 목사다. 그는 어떻게 화석화된 지역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전통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경산중앙교회를 생동감 있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교인들이 느끼는 그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김종원 목사**는 경북대학교 생물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탈봇신학교에서 성경해석학을 전공(Th.M.)하고 미국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중에 있다. 서울 삼일교회와 경산중앙교회 부목사를 거쳐 유학 중 미국 한미교회를 섬기기도 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섬겼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 “종원이자 죽자, 또 다른 종원이자 오네”

김종원 목사가 교회에 나온 계기는 특별하다. 초·중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가 등하교 때마다 그를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친구가 그만 중3 때 교회 야유회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했다. 너무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화가 난 그는 교회를 찾아가 목사에게 따졌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종원이구나. 종원이자 죽자 또 다른 종원이자 왔구나”라는 말이었다.

그가 교회에 온 것은 같은 이름을 가진 죽은 친구의 전도 결실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후 1985년 중3 때는 1년간 교회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예배와 말씀의 맛에 푹 젖어 살았다. 고1 때는 부모님 두 분을 전도해 교회로 인도했으며, 고3 때는 신학을 전공할 것을 결단했다. 그러나 주변의 조언으로 일반 대학에 먼저 진학한 뒤,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으로 진로를 바꾼 그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목회자가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가 이런 확신을 하게 된 데에는 학창 시절 좋은 스승 두 명을 만났기 때문이다. 한 명은 교회학교 때 교육전도사를 하였던 분이고, 또 한 명은 청년부를 담당했던 도원욱 목사였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고, ‘목회자의 삶의 표본’을 목격했다.

신학을 전공한 뒤 그는 서울 삼일교회에서 파트 사역을 하고, 경산중앙교회 전임 교역자로 사역했다. 당시 경산중앙교회는 그의 청년 시절에 영향을 미쳤던 도원욱 목사가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성실성으로 3년간 열심히

사역하며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곳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추구해 결국 미국 탈봇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처음에는 왕성한 사역을 하다가 한가해진 유학생생활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공부하며 미국 한미교회 부목사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는 당시 한미교회 담임목사였던 박성규 목사를 통해 제자훈련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한다. 당시 미주 12기로 CAL세미나를 수료했으며, 귀납적 소그룹 나눔에 대한 시야도 이때 열리게 됐다.

### 두 번째 설교가 담임목사 부임을 판가름

학업을 마치고 박성규 목사의 추천으로 2006년 서울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그는, 사역을 하며 제자훈련만이 목회의 본질임을 확인했다. 2009년 어느 날 사랑의교회에서 3년간 왕성하게 사역하던 중, 부목사 시절 그의 사역을 좋게 봐온 경산중앙교회의 한 장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담임목사님이 사임하셨으니,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는 제안이었다. 이후, 그는 경산중앙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두 번의 선보는 설교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고,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故) 옥한흠 목사님의 ‘참 좋은 교회’라는 데살로니가전서 설교를 인용해 평신도가 살아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침 경산중앙교회 교인들은 바로 평신도가 살아 있는 목



회를 해줄 담임목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위임투표 시 찬성 76%, 반대 24%가 나왔다. 보통은 90% 이상 찬성이 나오기 마련인데, 반대가 24%나 나왔다는 것은 김 목사에게 큰 부담이었다. 아예 내놓고 “나는 반대표 던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김종원 목사는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전통 목회보다는 제자훈련 목회를 선택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 6개월간 당회 기도회에 사활을 걸다

2006년 8월, 드디어 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종원 목사는 건축까지 완료하고 떠난 전임목사로 인해 상심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눈물을 닦는 설교를 3개월간 지속해야 했다.

그는 선보는 설교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평신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목회를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경산중앙교회는 이미 전임목사 시절부터 성경공부 형태의 주입식 제자훈련이 시행되고 있었다. 벌써 제자훈련만 9기, 사역훈련은 1기가 수료된 상태였다.

김 목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경산중앙교회 부목사 시절, 담임목사님이 CAL세미나를 다녀오신 후 제자훈련을 해보라고 해서 목회 철학도 없이 성경공부 식으로 제자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경산중앙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오니, 그때의 성경공부 식 제자훈련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백지상태라면 차라리 훈련 사역의 그림을 그리기가 편할 텐데, ‘나는 이미 훈련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다시 제자훈련 시스템을 세팅하는 데 지체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그는 장로들을 붙들었다. 매주 수요일예배 후 ‘당회 기도회’를 6개월간 드리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목회 비전을 공유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내용으로 승부를 걸자고 다짐했다. 먼저 그는 장로들을 붙들었다. 매주 수요일예배 후 ‘당회 기도회’를 6개월간 드리자고 제안했다. 1시간 반 정도 『평신도를 깨운다』나 릭 워렌의 저서 등을 읽고 나누며, 문제도 내렸다. 팔호 채우기 문제를 내주고, 페이지까지 알려주며, 답을 달게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목회 비전을 공유했다.

김 목사는 “우리 교회에 이미 제자훈련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장로님들이 받고 계신 제자훈련과 다르니 도와달라”며 당회기도회를 통해 장로님들을 설득했다. 이후 중직자 워크숍을 통해 경산중앙교회만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 냈고, 주보에 게재해서 전 교인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기성 교회, 특히 보수적인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담임목사로서 일방적으로 강대상에서 제자훈련 비전을 선포하지 않고, 약식으로라도 장로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해 비전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줬다. 옥한흠 목사가 말한 정석대로 실천한 것이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 하는 목사는 만인제사장설을 믿어야 한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같이 동역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말로만 믿는 제왕적 목사는 다르다”며 “평신도로부터 목회 철학이 나오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2011년 경산중앙교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다.



모든 중직자의 피선거권, 즉 안수집사, 장로, 권사 후보가 되려면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는 결정이 그것이다. 이 결정은 그가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2년 후, 평신도 스스로 내리도록 만든 것이라 의미가 크다. 또 부임 전 교회의 비전은 153비전(1만 명 성도, 5백 개 소그룹, 30명 선교사 파송)이었는데, 김 목사는 숫자가 목회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중직자들과 상의 후에 4대 목회 비전(부흥을 꿈꾸며,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해,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으로 바꿨다.



그는 목회 에너지를  
주일 설교준비 1/3, 금요성령집회 1/3,  
훈련 사역 1/3씩 각각 쏟아붓는다.



### 훈련 · 설교 · 금요집회에 사역 에너지 집중

이렇게 2009년 부임하자마자 장로들을 대상으로 텃밭 다지기를 한 그는 동시에 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을 인도했다. 부교역자들이 먼저 제자훈련을 경험해 봐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곧바로 2010년 5개 반을 모집해 70명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사역반 13명을 포함해 훈련생이 총 84명이었다.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 그리기가 어렵기는 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기에 모두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물론 새롭게 제자훈련 시스템을 세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올해에는 100명의 훈련생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 경산중앙교회의 제자훈련 경쟁률은 1.6대 1이다. 지원하면 면담을 통해 훈련받을 시기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선발 후에는 지각, 결석, 전화벨 울림 등의 제자훈련 규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제자훈련을 받을 때는 가정 개방이 필수이다. 집을 오픈해야 마음을 열고, 평신도 지도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역훈련은 26주 과정으로 담임목사와 사모가 직접 인도하며, 올해는 주일 저녁에 2반, 수요일에 2반을 하고 있다. 2학기에는 주일에 통합반으로 소그룹 인도자를 세우는 내용을

다루며, 구역예배 참관 및 인도실습이 이뤄진다. 이후 목자반 리더로 파송되는데, 현재 경산중앙교회 목자는 270명으로, 전체 40%의 성도가 훈련의 맛을 본 사람들이다.

제자훈련은 부교역자에게 맡기고, 담임목사는 사역훈련을 담당하는데, 중대형 교회 이상의 규모에서는 담임목사가 할 일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는 목회 에너지를 주일 설교준비 1/3, 금요성령집회 1/3, 훈련 사역 1/3씩 각각 쏟아붓는다. 일주일에 사역훈련 4번, 목자반(화, 주일) 2번, 행정, 심방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심방은 1월에 13개 교구 목사들이 돌아가며 하고, 담임목사는 주로 일터 심방을 하며, 3월 달에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심방한다.

특히 김 목사의 설교 준비는 3주 동안 연결되면서 준비하고 있다. 목요일이면 원고 작성이 모두 끝난다. 그러면 이 설교 원고를 성경공부 교재를 잘 만드는 부교역자 사모에게 바로 전달해 목자반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고 주일날 주보에 게재해서 배포한다. 그래서 담임목사의 설교가 주일예배, 목자반 등 한 주간 전 교회를 휩쓴다.

또한 경산중앙교회는 수요일 저녁예배보다 금요성령집회에 집중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밤에 와서 기도제목과 영적 성장을 위해 밤 12시가 넘도록 기도하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금요성령집회는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서 대구 · 경북 지역의 영적 엔진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 전 세대가 좋아하는 본이 되는 리더십

이렇게 김종원 목사는 설교와 제자훈련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어느 날은 하루에 몇 십 번 모임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바쁘지만, 그럼에도 김 목사는 설교, 훈련, 금요집회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시간관리가 철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역에 임하기 때문이다.

담임목사 옆에서 항상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도 김종원 목사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성실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존경한다. 실제로 김 목사의 옆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다고 말한다.

김 목사는 나이 많은 세대를 위한 배려심이 뛰어나다. 교회의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장로들과 상의하고, 설명한 뒤 의견을 끌어낸다. 한번은 그가 주일 6번의 예배에 중 5부 예배가 있는 4시에 남자 목자들을 위해 주일 목자반과 성경대학, 교리대학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또한 그는 매사에 솔선수범한다. 교인들에게 작은 정성을 표현할 때도 기꺼이 자신의 주머니를 연다. 2011년 사역훈련을 받은 정연욱 집사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김종원 목사님처럼 하시면 좋겠다”며 “특새 때는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 따뜻한 국에 들어가는 쇠고기의 값도 사비를 털어 제공하시고, 특새 후기 댓글을 다는 아이들에게 자비로 직접 책을 사서 선물하시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칭찬했다.

실제로 이 교회 평신도들은 김종원 목사를 닮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사역훈련을 김 목사로부터 받은 정해수 집사는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시고, 자신의 상처나 약한 점도 나누고, 무슨 일든지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며 “훈련 중에 목사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훈련시키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웃음 지었다.



했다. 보수적인 교회 어른들은 주일예배가 있는 시간에 양육 훈련을 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목사의 성실한 태도와 이해를 구하는 설명에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직장인 남자 목자반 모임을 허락했다.

또한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기도훈련을 위해 주 4회 새벽 기도 참석이 필수다. 그런데 5시에 있는 기존 새벽기도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직장인 훈련생들이 있어, 성도들의 동의를 구해 새벽예배를 6시 30분에 또 신설했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주일날 목자반을 여는 것이나 새벽예배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도 모두 교회에 이해를 구하고 시행한다.

황보수 장로는 “목사님의 온유한 성품과 피스메이커 역할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항상 도전하시고, 본인이 직접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본을 보이니 성도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구원의 확신을 주는 양육을 세우려

김종원 목사는 주변 지역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경산중앙교회처럼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러나 제자훈련에 실패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부분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 없이 제자훈련으로 곧바로 직행하다가 쓴맛을 본다고 지적한다. 새신자 교육도 사랑의교회처럼 5주 과정이 아니라, 한두 번 간단하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지나가는 오리엔테이션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신자 교육을 비롯한 양육은 초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심어줘야 하고, 성경이 알고 싶어도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김 목사의 지론이다.

그래서 경산중앙교회는 첫머리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최소 3년은 양육을 받도록 한다. 첫 과정은 새가족반(확신반) 5주 과정이다. 이때 일대일 새가족 교사를 준비해 집중적으로 섬기도록 한다. 이후 성장반 13주 과정을 1년에 두 차례 진행해



좀 더 성숙한 양육이 이뤄지게 하고, 각각 1년 과정의 성경대학과 교리대학을 뒤서 성도들이 신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리대학 강사는 이단 관련 일을 맡아서 하고, 그 외에도 교회 내부 블랙리스트나 이단 교육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 같은 경산중앙교회의 양육 과정을 모두 마치면 3년이 된다. 이렇게 양육 과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생을 모집하면,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과 영적 성장이 이뤄졌다고 판단되기에 선발이 쉽고 제자훈련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진다고 한다. 제자훈련 1년을 마치고 사역훈련 1년을 수료하면, 전도폭발훈련 1단계 과정이 또 있다. 이후 소그룹 리더로 목자반 모임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이런 훈련 사관학교를 마치면 비로소 교회의 중심권으로 들어오게 되니, 신천지 등 이단은 단계들을 거치면서 거의 걸려진다고 해도 무방하다.

김종원 목사는 이렇게 덧붙인다. “새벽예배부터 사역훈련까지 다 마치면 밤 10시가 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교역자의 존재 목적은 설교를 멋지게 한판 하거나 심방 후 대접받는 게 아니며, 오직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성경을 주신 목적이 같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봉사는 드러나 보이는 일이지 쉽지만, 온전케 되는 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도를 먼저 양육과 훈련으로 온전케 한 후에야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당회 기도회와 부교역자 제자훈련, 이후 곧바로 사역반을 인도하는 그를 보고 특별새벽부흥회에 설교하러 온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속도 조절 잘하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조언할 정도였다.

“담임목사가 되니 주일예배에 나와 주는 성도도 고마운데, 확신반과 성장반 성경대학과 교리대학까지 나와 주는 성도는

“목사님의 온유한 성품과 피스메이커 역할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난다.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항상 도전하시고, 본인이 직접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본을 보이니 성도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초신자들에게 새가족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 싶어 ‘일대일 새가족 교사 훈련’을 시키고, 직접 새신자들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과해야 그다음 단계로 진입해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고, 제자훈련을 받아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주일 3부 대예배 때 꼭 개최하고, 꽃다발도 주고 기념 촬영도 하며 성대하게 축하해 줍니다.”

## 1년에 2번 하는 ‘행축’은 교회의 자랑

김종원 목사가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떠날 당시만 해도 경산중앙교회의 성도 수는 1,400명이었다. 그런데 2009년 담임목사로 부임하니 3,200명 즉, 2,000명 정도의 성도가 증가해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이 교인 이동이 적은 지역이라는 점으로 볼 때, 꾸준히 전도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속성장 속에 허전함이 있었고, 그때 부임한 김종원 목사의 훈련 중심의 목회 방식이 교인들의 마음과 잘 맞아 떨어져 지금은 약 6,6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경산중앙교회만의 자랑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이하 행축)가 그 비결이었다. ‘행축’은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열리지만 실제로는 1년 내내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며, ‘행축’에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밀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김 목사는 자신의 몸을 분장하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 그는 난리법석을 떨고 촌스럽게 움직여 줘야 성도들이 입을 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경산중앙교회의 ‘행축’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전도 주일을 언제 하며 매뉴얼은 어떤지 신천지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다. 교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도를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의욕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신천지가 와도 이 교회는 뚫고 들어가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리는 것을 알고 겁먹게 된다”며 “제자훈련 하는 교회는 전도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오히려 제자훈련 하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산중앙교회는 3월 말 진군식 예배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흥을 꿈꾸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 교인이 진군식을 갖는 것이다. 작년에는 ‘올림’이라는 주제로 김종원 목사가 직접 고종황제 의상을 입고 전도 진군식을 가졌고, 올해는 ‘혼적’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황제 의상을 입고 진군식을 가졌다.

‘행축’ 기간에는 ‘택시 day’를 정해 태신자들을 태우고 오는 택시기사들에게 선물도 줘서, 웬만한 경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경산중앙교회 ‘행축’을 다 알 정도다. 아이들 역시 어른들이 하는 진군식을 좋아하고, 덩달아 전도하는 것도 좋아한다. 진군식 행사 중 “전도대상자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네” 하며 부모가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도하려면 힘을 모아야 해” 하며 단체 줄넘기도 한다. 두

더지 오락기를 빌려 위로 튀어나오려는 두더지를 망치로 때리며, “사탄이 전도 못 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해” 하며 전도 교육들을 재미나게 진행해 아이들에게 산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진군식이 끝나면 2주 후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이 역시 재미있게 한다. 제자, 사역훈련생을 비롯한 모든 교인이 ‘개인 소장용’과 ‘교회 제출용’으로 나뉜 태신자 작정 스티커를 성경책에 붙이고, 강대상에도 붙인다. 이렇게 경산중앙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모두 태신자 작정 카드를 강제적으로 내도록 한다. 이뿐 아니라 훈련생들에게 시기별로 태신자 작정하기, 전도숙제 하기, 태신자 품고 순종하기 등 새생명축제가 훈련의 진도와 같이 가도록 다양한 전도 생활 숙제를 내준다. 아예 제자반, 사역반 훈련생들의 첫 마디가 “지난주에 태신자 만났어?” 또는 “목사님, 제 태신자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일 정도로 전도에 대한 열기가 훈련반 안에서도 뜨겁다.

사실 김 목사는 사랑의교회 부목사 시절 대각성전도집회를 하는데,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지는 않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태신자 작성카드를 내는 방식이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산중앙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태신자 작성카드를 강제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 목사는 막상 ‘행축’에서 복음 설교를 전할 설교자가 별로 없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잘 준비를 해놓고, 태신자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2013년 봄 행축 결과, 태신자 작정에 3,165명이 참석해서 11,488명의 태신자를 작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행축 당일 2,574명의 태신자가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그중 1,453명이 결신을 해서 결신율 56.4%를 보였다. 행축 다음날 평신도 전화특공대 30여 명이 결신한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그 주 등록 주일에 279명이 교인으로 등록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몇 번의 전도축제에 대해 논문을 써도 좋을 만한 통계를 얻었는데, 태신자 작정을 100명 하면 50%인 50명이 집회 당일 참석하고, 15명이 결신하며,

그중 다시 30%인 5명만이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결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예 처음부터 태신자 작정율을 높여야 교회 등록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중앙교회는 쉽 없이 1년에 두 번 새생명축제인 ‘행축’을 열고 있다. 두 번을 하니, 태신자 작정율이 그만큼 높아졌고, 교회 등록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바로 이 점이 지난 5년간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다.

훈련반이 담임목사의 여론 수렴 창구가 된다. 제자훈련을 하면 소그룹 안에서 평신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회 여러 사안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목회의 건강성이 담보된다.

### 이루 셀 수 없는 훈련의 유익

김종원 목사는 제자훈련이야말로 목회자 개인에게 가장 유익한 사역이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 첫째는 목회자 스스로 자기 성장을 하도록 유도해 준다는 점을 들었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안 했으면 그동안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주일에 여러 예배와 모임에서 설교를 하니까 1년이면 대략 100편의 설교가 모인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면 훈련생들이 설교를 요약하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반복할 수가 없다. 계속 새로운 설교 준비를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목회자의 자기 성장을 의미한다.

둘째로 훈련반이 담임목사의 여론 수렴 창구가 된다. 담임목사는 모두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이 많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면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평신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 식사 교제를 통해 교회 여러 사안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목회의 건강성이 담보된다. 제자반, 사역반이 목회의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김 목사는 2010년 2기 사역훈련을 하면서 1권 교재를 끝낸 후 부부일기기도회를 가졌다. 텍시도를 입히고, 레드카펫을 깔며, 좋은 장소를 빌려 남편의 영상편지를 낭독하게 했더니 아내들이 매우 고마워했다. 이후 손잡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후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이 일은



2012년부터 유교적 분위기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사랑의 순례’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며, 올해는 3기 사랑의 순례 행사를 치르게 된다.

###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로

김종원 목사가 부임한 지 5년이 넘었다. 이제 교인들도 그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교인들의 DNA 욕구를 계속 이끌어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영혼의 변화를 맞본 성도들이 다시 다른 영혼을 구원하면서 전도의 맛을 보게 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살려고 하니까 전도가 약화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라며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 지속적인 건강성 유지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공동체성, 소그룹의 다이나믹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렇게 훈련과 전도의 균형 있는 두 날개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평신도들을 교회 밖으로도 이끌어 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빛과 소금의 제자로 살도록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일도 경산중앙교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변화된 평신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통해 교회 안에서 행복한 목자 사역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도 멋지게 완수하길 기대해 본다. 

〈우은진 기자〉